

에너지신산업 수출 '30년 2배로 확대

- '35년 소형모듈원전(SMR), 초고압 직류송전(HVDC) 케이블, 수소 터빈 등 10개 이상 품목 세계(글로벌) Top 3 목표
- 에너지신(新)산업 수출 동력화 원탁회의 계기, 『에너지신(新)산업 민관 연합(얼라이언스)』 출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7. 27.(목) 서울 대한상의에서 「에너지신(新)산업 수출 동력화 원탁회의」(제10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업계 대표, 금융계, 학계, 관계기관들과 함께 「에너지신(新)산업 수출 동력화 전략」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최근 소형모듈원전(SMR) 협력,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수출 계기(모멘텀)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업부가 발표한 「에너지신(新)산업 수출 동력화 전략」은 △수출 유망품목 기술개발·사업화 △세계(글로벌) 신시장 진출 활성화 △수출 동력화 혁신기반 조성 등 3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수출 유망품목을 시장 성장성, 기업역량 등에 따라 3개 그룹을 나누고 차세대기술 선점을 통한 초격차 유지, 대규모 실증 사업(프로젝트) 추진, 해외 최정상급 석학과의 협업 촉진 등 맞춤형으로 기술개발·사업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유망진출국과의 정부 간(G2G) 협력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친환경(그린) 공적 개발원조(ODA)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약 5천억 원 규모의 정책기금(펀드) 조성과 약 100조 원 이상의 민관 금융투자 확대, 해외 진출 전문인력 양성, 규제 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지원 강화 등 혁신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신(新)산업 수출을 2030년 2배, 2035년 3배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에너지신(新)산업 유망품목의 세계(글로벌) Top 3 진입도 10개 이상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원탁회의에 앞서, 산업부, 9개 기업, 3개 금융기관, 2개 관계 학계, 2개 관계 협회, 5개 관계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여 「에너지신(新)산업 수출 동력화 전략」을 이행할 「에너지신(新)산업 민관 연합(얼라이언스)」을 발족하였다. 이번 연합(얼라이언스)은 동반 진출, 「에너지신(新)산업 수출 카라반」 운영 등 우리 에너지신(新)산업 기업이 해외판로를 개척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양 장관은 “에너지신(新)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고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며, 에너지산업이 이제는 내수중심이 아닌 새로운 수출동력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에너지신(新)산업 민관 연합(얼라이언스)」 중심으로 에너지신(新)산업 수출 동력화가 본격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참 고】 1. 「에너지신(新)산업 수출동력화 원탁회의」 개요
2. 「에너지신(新)산업 수출동력화 전략」 요약본
- 【별 첨】 「에너지신(新)산업 수출동력화 전략」 PPT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홍수경 (044-203-5150)
	에너지기술과	담당자	사무관	노주현 (044-203-5151)



참고 1

「에너지新산업 수출동력화 원탁회의」 개요

1. 행사 개요

- 일 시 : '23.7.27(목) 10:00~11:30
- 장 소 : 서울 대한상의 8층 산업기술평가원 대회의실
- 내 용 : 에너지新산업 수출동력화 전략 발표, 민관 얼라이언스 발족

2. 참석 인원 : 약 20명 내외

- (정부) 산업부 장관, 에너지정책관, 관련 담당 국장 등
- (업계*) 주요 에너지新산업 기업(에너지혁신벤처 포함), 유관 협회 등
 - * (대기업) 두산에너지빌리티, LS전선,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E혁신벤처) 와이피피, 스탠다드 에너지, 에바, 케빈랩, (협회) 에너지얼라이언스, KEMIA, (중소기업) 한전
- (금융계)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신한은행 등
- (학계) 에너지융합대학원, 에너지혁신연구센터 대표 교수/학생 등
- (기관) KOTRA, KIND, KETEP, R&D 전략기획단, KTL 등

3. 세부계획

시 간	(90)	내 용	비 고
10:00 ~ 10:05	(05)	▶ 에너지新산업 민관 얼라이언스 출범식	참석자
10:05 ~ 10:07	(02)	▶ 기념 촬영	참석자
10:07 ~ 10:12	(05)	▶ 모두 발언	산업부 장관
10:12 ~ 10:20	(08)	▶ 에너지新산업 수출동력화 전략 발표	산업부 에너지정책관
10:20 ~ 10:28	(08)	▶ 국내 에너지혁신벤처의 해외진출전략	와이피피 사장
10:28 ~ 10:36	(08)	▶ 에너지 글로벌 해외석학 협업 성공사례	혁신연구센터 졸업생
10:36 ~ 11:26	(50)	▶ 업계 의견 청취 및 토론	참석자
11:26 ~ 11:30	(04)	▶ 마무리 발언	산업부 장관

참고 2

「에너지新산업 수출동력화 전략」 요약본

< 전략 목표 >

- ◆ 2030년, 에너지新산업* 수출 2배 달성
- ◆ 2035년, 수출 3배 달성, 글로벌 Top 3 품목 10개 진입

* 원전, 수소, 재생 등 청정에너지와 전력계통, ESS, 에너지효율 등 최근 새롭게 대두되는 에너지산업 분야

< 전략 ① [기술] 수출 유망품목 기술혁신·사업화 >

- ① 유망품목을 시장성장성, 기업역량에 따라 그룹별* 기술개발·사업화 전략성 강화, 기술·시장 전략그룹 신설 등 에너지 R&D 혁신
 - * (그룹 I) 핵심전략 품목 : 초격차 유지, 차세대 기술선점, (그룹 II) 유망시장 품목 : 시장지향형 대규모 실증 추진 (그룹 III) 신속추격 품목 : 기술 캐치업 전략 + 실증 패키지 추진
- ② 분야별 해외 최정상급 석학과의 협업 및 선도기술 도입을 통한 국내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전면 개편
- ③ 민관 합동 6개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 신설하여 트랙레코드 확보 지원

< 전략 ② [시장] 글로벌 신시장 진출 활성화 >

- ④ 에너지 파트너십 강화,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원전 협력 등 정상회의 성과를 모멘텀 삼아 실제 수출로 연계되도록 권역별 G2G 협력 강화
- ⑤ 국가별 맞춤형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발굴, 그린 ODA 외연 확대(다각화, 대형화, 협력확대) 등 우리기업의 신시장 진출 지원 강화
- ⑥ 「에너지新산업 민관 얼라이언스」를 출범하여 동반진출, 「에너지新산업 수출카라반」 운영을 통한 수출애로 해결 등 판로개척 집중 지원

< 전략 ③ [인프라] 수출동력화 혁신기반 조성 >

- ⑦ 약 5천억원 규모의 정책펀드 조성(~'23), 100조원 이상의 민간 금융투자 확대(~'30) 등 에너지新산업 금융·투자 확대
- ⑧ 세계 최정상급 인재 유입 플랫폼으로 에너지혁신연구센터 고도화, 「수출특성화 인재육성 프로그램」 신설 등 해외진출 전문인력 양성
- ⑨ 에너지 분야 (국내) 규제샌드박스 지원 강화, (국내-해외) 에너지新산업 전문 무역상사 매칭 확대, (해외) 에너지新산업 협력센터 구축 등 혁신기반 확충